

플라타너스

김현승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 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이제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오늘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플라타너스
나는 너를 지켜 오직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 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9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질수록 플라타너스 잎새들이 큰 잎을 너풀거리며 거리를 더 운치있게 만들어주겠지요? 대기 오염과 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서 가로수로 많이 심는 플라타너스는 버즘나무과에 속하는데, 10 여종이 있다고 하는군요. 사람의 꿈과 낭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하게 서있는 플라타너스를 보면서 시로 쓰신 김현승선생님의 <플라타너스>를 읽어보면 이 가을이 더 정겨울 것 같습니다. 꿈을 아느냐고 누군가가 물을 때 말을 많이 하거나 대답을 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파란 하늘에 머리 젖어 꿈꾸고 있는 플라타너스처럼 꿈꾸고 있는 한 그루 나무인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늘여주고 같이 걸어주는 말없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한그루녹색회와 그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9월의 시입니다.

(글/김영숙(시인), 노래그룹 해오른누리 기획실장)